



해외출장 가이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황 1

II. 남아공 경제동향 및 전망 2

III. 한-남아공 교역현황 5

IV. 아프리카 경제현황 및 전망 6

V.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현황 8

VI. 남아공 방문 및 체류 안내 11

VII. 남아공 치안 및 안전 대책 16

VIII. 남아공 시장특성 및 마케팅 유의사항 · 17

IX. 기타 참고 사항 19





1. 국가개황

□ 일반사항

국명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위치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면적	1,219,090km ² - 한반도의 5.5배, 남한의 12배
기후	내륙 지방(온대성), 서부 해안(지중해성), 동부 해안(아열대성), 건조기후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인구	5,498만명 (2016년)
주요 도시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더반(Durban), 프레토리아(Pretoria)
인종 구성	흑인(79.8%), 백인(8.7%), 혼혈(9.0%), 아시아계(2.5%)
언어	영어, 아프리카נס어, зулу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종교	기독교(79.8%), 카톨릭교(7.1%), 이슬람교(1.5%), 힌두교(1.2%), 토착신앙(0.3%), 유대교(0.2%), 기타(17.1%)
건국(독립)일	1910년 5월 31일 (영국)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등)
국가 원수	Jacob Zuma (대통령, 취임일:2009년 5월, 재취임일: 2014년 5월)

자료: EIU(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경제 현황

GDP(명목)	USD 2,951억불 - 아프리카 전체 GDP의 13% 이상 차지
1인당 GDP	6,618불('15)
화폐 단위	Rand(랜드), US\$1=14.71R ('16년 평균)
교역 규모	1,660억불('16) -> 수출: 766억불 (금, 다이아몬드, 백금, 디타 금속 및 광물 등) -> 수입: 751억불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석유제품, 과학 기자재 등)
경제적 강점	광물자원 풍부, 공업기반 양호, 금융업 발달
경제적 약점	전력난, 높은 실업률, 노사 분규, 치안 불안, 랜드화 가치 변동성 높음

자료: EIU(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2.12.01
- 교역량 : 22.8억불
 - 수출 : 9.5억불 (자동차,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철강판 등)
 - 수입 : 13.3억불 (철광, 유연탄, 합금철, 백금, 동괴, 알루미늄괴 등)
- 진출 현황 : 대한전선, 삼성전자, LG전자 등 20여개 기업



II. 남아공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 성장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이며,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아프리카 내 최대 시장이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남아공의 랜드화 평가절하 및 높은 변동성으로 1% 내외의 소폭 성장이 전망됨

- 경제성장률 (%) :

남아공 : ('13)2.3 → ('14)1.6 → ('15)1.3 → ('16)0.3 → ('17^e)0.8

세계 : ('13)3.4 → ('14)3.2 → ('15)3.4 → ('16)3.1 → ('17^e)3.5

- 긍정적 요인

- 흑인 중산층 증가에 따른 의료, 유선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 성장
-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의 회복세
- 세계 경제 및 신흥국의 빠른 경기 회복세
- 아프리카 대륙 최고의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물가 안정세(목표범위인 3~6% 진입 전망)

- 부정적 요인

- 주요산업부문의 빈번한 파업, 기술인력 부족, 높은 실업률
- 공공부문의 비효율, 부정부패 등 구조적인 문제
- 재정긴축에 따른 민간 소비 및 정부 지출의 약화
- 투자부적격 등급 강등에 따른 기업신뢰도 하락 및 외국인투자금 회수 가능성

□ 경상 수지

- 재무부의 재정긴축 등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남아공 경기 침체 및 외국인 투자 위축 심리로 경상 수지가 '16년 GDP의 3.3% 수준에서 '17년^e 4.1% 수준으로 증대 전망

* 경상수지적자(% of GDP): ('14)-5.4 → ('15)-4.4 → ('16^e)-3.3 → ('17^e)-4.1



남아공 무역 수지 통계 (단위: 백만불)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e
경상수지	-21,129	-19,051	-13,665	-9,637	-12,856
서비스 수지	-1,242	-186	-469	-558	-602
무역수지	-7,086	-6,328	-2,696	989	-2646

자료: EIU(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환율

- 원자재 가격 회복, 신흥국 통화 강세 및 지표개선 등에 힘입어 '17년 들어 랜드화 환율은 R13/\$ 초반 수준을 유지 중
- '17년 4월 초, 급작스러운 개각과 정크수준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랜드화 환율은 R13/\$ 후반대로 일시 급락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되찾음
- 하지만 '17년 말 차기 집권여당(ANC) 지도자 선출을 둘러싼 국내 정치 불확실성, 美 금리인상의 파급효과 및 추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이 랜드화의 추가 평가절하 요인으로 상존

□ 산업

- 광업 :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찍이 광산업이 발전 하였으며, 2016년 기준 남아공 GDP의 7.3%, 수출액의 1/3 점유 고용 인구 5만명 차지. 최근 광산업분야의 노조파업 및 인건비 상승,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침체
- 철강 : 풍부한 철광석 매장 (16억 톤, 세계 11위)을 바탕으로 발전한 철강 산업은 남아공 제1의 제조업으로서 제조업 총생산량의 약 22% 차지. 그러나 최고의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철강 산업 침체
- 석유화학 : 두 번째로 큰 제조업으로 남아공 제조업 생산량의 약 21% 점유, 아프리카 최대 석유화학제품 생산국
- 자동차 : 정부 육성정책에 따라 BMW, 벤츠, 도요타 등 세계 주요 7개 메이커들의 생산 공장을 유치했으며, GDP 6.8% 점유



□ 대외 교역

- 남아공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수출 부진으로 '16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6.1%, 수입은 12.3% 감소

주요 수출품목	백금류, 금, 유연탄, 철합금,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목	원유, 기계, 전자제품, 자동차, 플라스틱, 의약품 등
주요 수출국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인도,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수입국	중국, 독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영국, 이3 등

※ 한국은 남아공의 17위 수출대상국 및 19위 수입대상국 ('17.05)

자료: WTA(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남아공 주요 경제 지표>

(US\$,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e
국내총생산(백만불)	366,473	350,059	312,817	295,186	314,106
실질성장률(%)	2.3	1.6	1.3	0.5	1.3
물가상승률(%)	5.3	5.3	5.2	7.1	6.3
실업률(%)	24.7	25.1	25.4	26.7	28.4
환율(R:US\$)	10.49	11.54	15.57	13.70	16.14
경상수지(백만불)	-21,129	-19,051	-11,990	-9,637	-12,856
외환보유액(백만불)	49,690	49,093	45,910	46,449	46,417
총수출액(백만불)	96,700	92,545	85,542	75,155	78,232
총수입액(백만불)	-103,786	-98,873	-88,559	74,166	80,878

자료: EIU(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III. 한-남아공 교역 현황

연도별 교역현황

구 분(단위: 백만불)		10	11	12	13	14	15	16
수 출	금 액	1,668	2,255	2,188	2697.2	1,475	1,262	950
	증가율(%)	54.2	35.2	-2.9	23.2	-45.3	-14.4	-24.74
수 입	금 액	2,272	3,105	2,129	1729.5	1,623	1,417	1,331
	증가율(%)	93.9	36.7	-31.4	-18.8	-6.1	-12.7	-5.95
무역수지	금 액	-604	-850	59	967	-148	-155	-381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2016년 10대 수출입 품목

순위	수출품목	2016 (백만불)	증감율	수입품목	2016 (백만불)	증감율
1	승용차	247	-38.2	철강	237	-32.7
2	자동차부품	62	-18.2	합금철	228	-19.5
3	건설중장비	50	-24.8	유연탄	175	1,414.0
4	합성수지	46	-17.4	승용차	120	44,656.9
5	화물자동차	45	-40.9	동괴및스크랩	117	-21.5
6	인쇄용지	28	5.7	백금	102	-44.7
7	아연괴및스크랩	24	-14.3	기타금속광물	74	-25.3
8	무선전화기	19	-38.4	기타산업기계	34	-16.7
9	기타석유화학제품	17	-8.8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7	-73.3
10	냉장고	17	1.4	기타정밀화학원료	24	-15.4
합계		950	-24.7		1,332	-6.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MTI 4단위 기준)



한.남아공 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백만불)

구분		10	11	12	13	14	15	16
對남아공 투자	금액 (백만불)	16.772	32.595	75.785	5.848	8.626	5.267	6.297
	건수	4	15	18	20	20	7	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IV. 아프리카 경제현황 및 전망

경제 성장

- 아프리카 경제는 '01년 이후 높은 원자재 가격 및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15년 들어 수출품목의 가격하락 장기화, 나이지리아 및 남아공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16년 1.4%의 성장률을 기록함. '17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은 2.6%로, 세계 원자재 가격의 미진한 회복,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국가부채 및 공공지출 등 부정적인 요인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실질GDP 성장률(% , IMF) : ('13)5.2 → ('14)5.1 → ('15)3.3 → ('16)1.4

- '18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3.5%로, 세계 평균 성장전망(3.6%)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나, 2022년에는 세계 평균(3.8%)을 추월 할 전망

- 아프리카 GDP 성장전망(% , IMF) : ('17)2.6 → ('18)3.5 → ('22)3.9

투자

- 세계의 대 아프리카 투자는 '11년 이후 50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16년 투자유치액이 하락세를 보임. 하지만 그린필드형 투자는 세계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15년 : 680억 달러 → '16년 : 1,030억 달러)

< 대 아프리카 FDI 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투자 유치액	477	550	520	580	540	510

자료: UNCTAD(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교역

- '14년 이후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수출입 시장이 침체되었으나 '17년 원자재 가격의 소폭 회복 및 아프리카 인구의 소득증대 및 도시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입시장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2012	2013	2014	2015
수출	439	424	401	292
수입	404	407	417	367

자료: UNCTAD(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역내 공동체

-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양한 역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 대응 노력
 - SACU, COMESA 등 아프리카 역내에만 10여개의 경제공동체가 존재
 - 그러나 국가간 경제력 격차, 다양한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공동체 역할 및 활동력이 미약한 상황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현황>

구 분	면적(천 km ²)	인구(천명)	가입국 수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5,112	251,646	15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2,693	51,055	5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12,873	406,102	19
EAC(동아프리카공동체)	1,817	124,858	5
ECCAS(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3,264	121,454	10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9,880	233,944	15

- 그러나 국가 간 경제력 격차 및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해 공동체 역할 및 활동력 미약

□ 향후 전망

- 원자재 가격 회복 및 글로벌 경기 호조로 아프리카 경제의 소폭 회복이 전망됨
- 아프리카 각국 정부의 무역자유화, 가격 및 환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점차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
- 아프리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정치적 제도적, 제약으로 인한 투자 불확실성 내재



□ 소비 시장

- 아프리카, 지속적인 중산층의 성장과 도시화로 차세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 구매력 있는 신흥 중산층(블랙 다이아몬드)의 확대가 소비시장 성장을 견인
 - 중산층 규모(UN) : ('15) 3.5억 명 ⇨ ('30) 5억 명 ⇨ ('60) 11억 명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도시화율(%), UN) : ('10) 36.4% ⇨ ('30) 45.9% ⇨ ('50) 56.7%
- 아프리카의 소비재시장 규모는 2015년 현재 4조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10년 이내 5.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맥킨지글로벌, 2016)
 - 최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 추월
 - '10-'15년 아프리카 소비성장률(3.9%), 아시아 신흥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2015-2025년 아프리카 소비재시장 전망>

Consumer and business spending, 2015 \$ billion, 2015 prices		Growth, 2015-25 \$ billion, 2015 prices	Growth rate, 2015-25 %
Consumer	1,420	645	3.8
Business	2,560	970	3.3
Total	3,980	1,615	3.5

* 자료원 : 맥킨지 글로벌, 2016년 9월

V.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현황

□ 교역 규모

- '16년 한-아프리카 간 무역규모는 134억 달러로 전년대비(131억 달러) 2.3% 증가
- '16년 수출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17.8% 감소로 인하여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11% 증가

< 한-아프리카 대륙 교역 현황 (백만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3	11.166	21.6	5.791	7.6	5.374	41
2014	9.901	-11.3	8.054	39.1	1.847	-67
2015	7.559	-23.7	5.549	-31.1	2.010	8.8
2016	8,813	16.6	4,563	-17.8	4,249	111.4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해외 투자

- '16년 말 기준 한국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1,785건에 40억 달러 규모
- 아프리카는 우리 해외투자의 1.14% 점유 ('16년 누계 기준)

< 한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동향 (백만달러) >

(출처:한국수출입은행)

분 류	2013	2014	2015	2016	누 계
신규법인	35	41	34	26	136
투자금액	226	317	118	149	8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주요 품목

- 한-아프리카 교역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구조
 - 주요 수출품 : 선박,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 주요 수입품 : 원유, 철강, 동괴, 기타금속광물 등

< 한국의 대 아프리카 주요 수출입품목 (백만달러) >

순 위	수출		수입	
	품목	수출액	품목	수입액
1	선박	4,768	원유	1,123
2	경유	1,162	동괴및스크랩	959
3	승용차	444	천연가스	278
4	합성수지	259	철광	237
5	기타석유화학제품	154	합금철	228
6	화물자동차	135	유연탄	196
7	건설중장비	120	LPG	153
8	기타정밀화학원료	101	우라늄	124
9	자동차부품	90	승용차	120
10	기타섬유제품	88	기타금속광물	103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자원 개발

-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삼성물산,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등이 자원개발 및 인프라 사업 등에 진출

< 국내 주요 아프리카 자원 개발 진출 사업 >

진출기업	시기	국가	사업내용
광물자원공사	2011.7	남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노천광산 개발 ■ 전체 생산량의 30%인 약 6000t의 희토산화물 확보 예상
광물자원공사, 삼성물산 등	2011.7	DR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발트 및 구리 광산 장기구매계약 추진
한국가스공사	2012.7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정 개발에 10% 지분 참여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2011	카메룬, 탄자니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를 연속 방문, 각국 정상, 장관 만나 협력관계 구축
광물자원공사, 대우인터내셔널	2006-	마다가스카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생산에 성공

□ 플랜트 수주동향

< 한국의 대 아프리카 플랜트 수주동향(백만달러) >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주액(백만)	5,416	6,912	6,839	486	1,115

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2017.5월 입수가능 최신자료)

□ 우리 기업 진출 여건

- (진출전망) 원화 상승, 현지화 압력으로 기존 진출방식에 한계
 -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주력품목의 가격 경쟁력 상실
 -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수출호조 지속중이나 '12년 하반기 이후 성장둔화
 - 높은 실업률 해소가 당면과제인 각국 정부들은 외국기업에 직접투자를 통한 자국민 고용을 요구
- (기업역량) 진출경험 및 지역이해 부족, 진출전략 및 자금 부재
 - 일부 대기업 외에 기업 내 아프리카 전문가 부재로 진출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아프리카 시장 특성상, 투자 대비 성과창출에 장기간이 소요
 - 정부주도의 정책지원 부재 시, 진출시도 기피 → 시장진출 부진의 악순환 반복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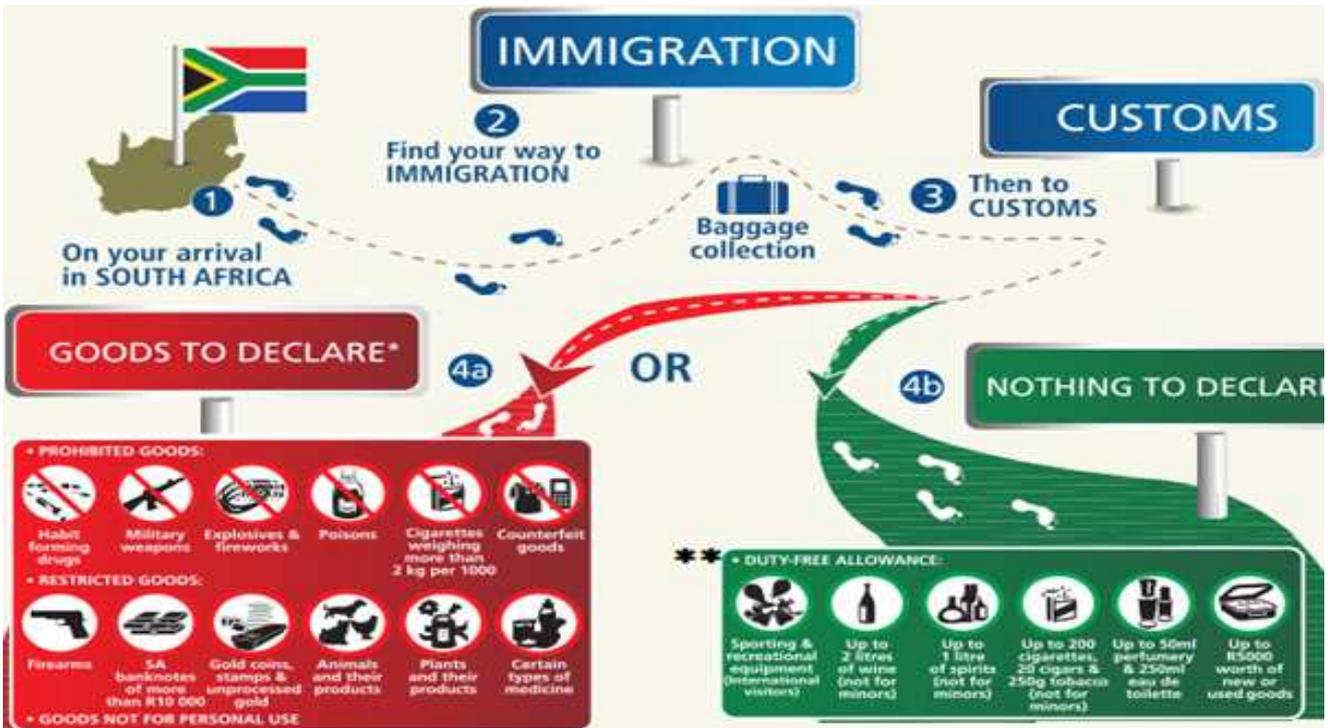


VI. 남아공 방문안내 및 체류안내

□ 남아공 출입국 절차 및 비자

- 남아공 출입국 시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심사를 받게 됨
 - 남아공은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해 공항에서 방문비자 (1개월)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사전 비자발급은 필요하지 않음
 - 비즈니스 출장자와 같은 단기 방문자는 왕복항공권을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
 - 입국심사 후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은 非신고구역(Green Channel)과 신고구역(Red Channel)으로 구분되어 있음

< 입국심사 후 세관통과 절차 >



(면세범위: 개인용품,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 잎담배 250g, 주류 1L, 와인 2L, 향수 50ml)

- 최근 중국인 방문객들의 불법적 물건반입이 빈번하여 동양인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있음. 비즈니스 상담을 위해 제품 샘플 등을 소지하고 오는 출장자는 ‘**남아공 세관에 신고를 하고 예치금을 납부**’ 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TA Camet을 발급' 받아 와서 통관 하면 됨.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세관 신고 없이 샘플 등을 반입해 오고 있는데,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예방접종

- 한국에서 남아공 입국 시에는 별도의 예방접종이 필요치 않음
 - 요하네스버그는 말라리아, 황열병 등과 같은 풍토병 안전지대이므로 별도의 예방접종은 필요치 않음
 - 남아공 내 지역중 크루거 국립공원이나 인근 짐바브웨 및 모잠비크 국경지대 등은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여름철 (11월~3월)에 동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음

□ 환전

- 남아공의 화폐단위는 랜드(Rand)이며 지폐는 R10, 20, 50, 100, 200랜드가 있음
- 현재 환율은 1\$당 약 13랜드(2017.05)이며, 환전은 은행, 호텔, 환전소, 공항,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 시에는 여권이 필요함
- 남아공은 달러화로의 환전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므로 랜드화를 달러화로 재환전 할 경우에는 당초 랜드화로 환전한 증명서, 여권, 항공권 사본 등이 필요함. 따라서 당초 달러화를 랜드화로 환전했을 때 받은 환전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남아공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므로 소액만 환전하고 큰 금액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화이용방법

- 한국 (서울)로 전화 하는 방법
 - 국제전화 00 - 82(한국국가번호) - 2 (서울지역번호) - 전화번호
 - 한국 Collect Call(수신자 요금부담 전화) : 0800 - 9900 - 82
 - 호텔에서 사용하실 경우 0 번을 먼저 누른 후에 사용
- 남아공 내 전화 요령
 - 지역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누름
 - 지역번호 : 요하네스버그(011), 프레토리아(012), 케이프타운(021), 더반(031)



○ 공중전화 이용방법

- 동전식 및 카드식 공중전화가 있음. 동전식 전화기 사용시에는 50c, R1, R2, R5등을 사용하며 카드식 공중전화 사용 시에는 호텔, 우체국, 주유소 등에서 카드 R10, R20, R50을 구입하여 사용

□ 인터넷 환경 및 사용

- 남아공 내에서 인터넷 실제 속도 3mpbs 이상이면 빠른 편에 속함
- 호텔에서는 Business Centre 또는 룸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나, 대부분 유료 서비스

□ 사용 전압

- 남아공의 표준전압 및 주파수는 220~250V/50HZ 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은 별도의 전압조절장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남아공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러그는 3 개의 둥근 구멍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므로 어댑터를 이용해야만 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2구 플러그를 그대로 어댑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어댑터는 호텔에 비치되어 있거나 로비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호텔의 경우에는 할인마트(Pick n Pay, Checkers, Game 등)에서 구입 가능. 가격은 한화로 2000원 내외

남아공 콘센트	남아공 어댑터
	



□ 기후

-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
- 11월~3월 : 여름(우기) / 6월~9월 : 겨울(건기)
- 한국과 비슷하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나 봄, 가을은 대체적으로 짧음
- 남아공의 연평균 기온은 약 17℃, 강수량은 466mm
 -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지역이 20%, 200mm~600mm 지역이 50%, 600mm 이상인 지역이 30% 정도임
- 요하네스버그 기후
 - 요하네스버그는 해발 1,750mm에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조한 기후
 - 여름철 평균기온은 낮 30℃, 아침저녁 20℃
 - 일교차가 매우 크고, 특히 겨울에는 아침/저녁으로 영상의 기온이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감

□ VAT 환급

- 남아공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하실 때 부가세 14%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요건 : 물품 구입액이 총 R250 이상인 경우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 가능(호텔비, 렌트비, 가이드비, 식음료비, 식사비 등 증빙할 수 없는 대상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 물품을 구매한 상점에서 VAT 환급 영수증 발급
 - 공항에서 체크인 하기 전 공항 VAT 환급 심사대에서 VAT 환급영수증과 물품을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음
 -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VAT 환급소에 가서 여권과 세관원의 도장이 찍힌 Tax Invoice를 제출
 - VAT 환급소 직원은 랜드화로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현지화 수표로 신청인에게 전달
 - VAT 환급소 옆에 있는 은행(ABSA Bank)에 가서 달러화 혹은 현지화로 교환
 - VAT 환급에는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만 VAT 환급절차를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음



***** 남아공 여행 시 참고 사항 *****

○ 팁 관행

- 식당에서는 10%정도의 Tip을 지불하며 호텔에서 룸서비스나 포터에게 미화 1불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되며 택시이용에는 Tip이 없음

○ 구두담이

- 거리에서는 구두담이를 찾을 수 없으며, 주요 호텔 정문에서 찾을 수 있음. 약 20랜드 (미화 1불 50C) 정도의 tip을 지불하면 됨

○ 특산품

-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 전통 공예 장식품이나 구슬공예 장신구, 건강식품 (악마의 발톱, 오메가3, 스피룰리나, 루이보스 차) 등이 있음

○ 근무시간

- 일반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토·일요일은 휴무임. 대체적으로 은행은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 일반 상점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며 일요일은 오후 1시에 문을 닫는 상점이 많음

□ 체류 중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 고
KOTRA JHB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7-11-784-2940	011-784-2983	이승희 본부장 : 082-494-2058 임재걸 차 장 : 082-494-2075 임수주 차 장 : 071-642-9798 정동하 과 장 : 082-493-5820
대사관 영사과	+27-12-460-2508	012-460-1158	
한국식당	+27-11-234-7292 +27-11-234-2374 +27-72-913-3269 +27-11-234-5425 +27-12-348-1017 +27-12-346-3260 +27-21-477-1500		대장금 (Sandton, JHB) 아리랑 (Sandton, JHB) 반찬 (Sandton, JHB) 코리아나 (Sunninghill, JHB) 서울가든 (Pretoria) 신라 (Pretoria) 성북정 (Cape Town)
한인운영 여행사	+27-83-333-0400 +27-76-034-4059		Gilbot Travel (윤혜선) Africa Tour Story (진윤석)



VII. 남아공 치안 및 안전 대책

□ 체류시 유의 사항 (중요)

- 남아공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요하네스버그 지역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빈번히 일어남
- 또한 외국인 방문객은 가장 피해를 입기 쉬운 범죄 대상인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람
 - 공항 도착시 소지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중요한 귀중품은 관리가 용이한곳에 두도록 하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는 조심성을 가져야 함
 - (단독외출삼가) 외부인에 대한 범죄율이 높은 흑인 밀집 지역인 요하네스버그 중심가 (CBD) 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출입을 삼가야 하며 밤, 낮 모두 단독 외출은 삼가
 - (귀중품관리) 귀중품은 반드시 호텔에 예치하거나 본인이 소지하여야 함. 호텔에서 식사 시 지갑을 방안에 두고 가는 경우에도 청소원이 훔치는 사례가 있으며 상담 시에도 양복 상의 안에 귀중품을 두고 의자에 걸지 말것
 - (피습 시) 괴한의 피습을 받을 경우 저항하거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 대부분의 범죄자는 총을 소지하고 있음
 - (야간외출금지) 어두워져 주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락처가 표시되지 않은 택시는 이용하지 말고 가능한 혼자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삼가 하는 것이 좋음
 - (신속피신) 외출 시 귀중품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행동이나 노출은 삼가고 동료에게 행선지를 알린 후 외출 하며, 노상에서 행적이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경우 신속히 피신 할 것
 - (환전 시 유의) 인적이 드문 곳이나 노상에 위치한 현금인출기 등은 이용을 삼가고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택하여 인출 후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할 것



VIII. 남아공 시장특성 및 미팅 시 유의사항

□ 남아공 시장특성

- (남부 아프리카 최대시장)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 경제 동맹체제인 SADAC 14 개국 GDP의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53개 전체 아프리카 국가 GDP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두 번째 규모 시장
 - 남아공은 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 많은 생활필수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의 제조업도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확연한 소비계층 구분) 흑인계층은 실업률이 높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백인들은 유럽수준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중간계층을 형성하고 있음. 부유층인 백인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
 - 흑인계층은 흑인 정부 집권 이후, 정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신흥 부유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는 빈곤층임
 - 흑인, 백인 다음으로 최대 인종인 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현재 장관 및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등 정/재계에 걸쳐 현지에 동화되어 있음
- (공급자 중심 시장) UN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남아공 경제를 소비자시장에서 공급자시장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이는 경제제재 조치 하에서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소비는 그 다음 문제였기 때문
 - 이와 같은 관행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현재에도 남아있는데, 장기간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물품 구매에 앞서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사임
 - 공급자 위주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이 책정되고 있어, 수입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약 2~3배 수준



- **(에이전트 중심시장)** 각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남아공 수입상들은 대부분 수입상담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고 있음. 독점 에이전트권과 관련하여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남아공은 시장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복수 수입상에게 물품을 공급할 경우, 시장을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임
 - 섬유, 기계, 전자제품 및 부품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5%정도의 커미션을 요구함
 - 남아공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권 및 독특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구됨

- **(소량 다품종 주문의 일반화)** 남아공 시장은 유럽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이며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됨
 - 많은 한국 수출업체들이 남아공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남아공 바이어들은 대부분 유럽계 백인들로서 소량다품종 주문이 많으며 까다로운 품질수준을 요구

- **(12월 중순 이후 1개월간 대부분의 비즈니스 중단)** 남아공은 남반부에 위치한 관계로 휴가시즌이 12월부터 시작되며 특히 크리스마스 와 연말연시가 겹치는 관계로 대부분의 회사, 공장들이 12월 중순부터 문을 닫고 1월 중순까지 휴무
 -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를 겨냥한 주문은 늦어도 10 월까지는 마무리해 야 하며 11월이 지나면 상담에 응하려는 바이어가 거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11월 이후 남아공 세일즈 출장은 삼가야 하고 1월 중순 이후 휴가에서 돌아온 비즈니스맨들이 휴가기간 동안 밀린 업무를 마무리하는 2월 부터 거래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 **(A/S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남아공은 A/S가 매우 중요한 시장임. 1 년간 품질보증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반품된 제품은 곧바로 수출업체에 클레임으로 연결되기 때문
 - 특히 기계류, 부품류의 수출은 현지에 A/S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바이어가 수입을 하려들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나 법인 설립을 통해 A/S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물류, A/S 및 에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물류창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미팅 시 유의 사항

- (인종 및 종교문제 언급자제) 남아공은 지난 1990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인종문제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 하는 것이 좋음
 - 남아공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보급되어 있으므로 논쟁을 유발 할 수 있는 종교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격 결정시 높은 유통마진 고려) 남아공은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과 수입가격에 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남아공 현지 시장가격과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은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 결정시 현지의 시장가격을 고려하되 높은 유통 마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
- (에이전트 선정 상담시 유의사항) 남아공은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에이전트 혹은 동종 업종 간에는 정보교환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한 에이전트와의 상담결과가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려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담에 임해야 함.
 - 바이어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남아공에서는 통하지 않음.

IX. 기타 참고 사항

□ 교통편 이용방법

- 남아공은 치안이 매우 불안해 흑인들이 이용하는 봉고택시 등 대중교통은 이 용은 절대 금지
 - 택시 이용의 경우에도 호텔이나 공항에서 공인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통역원 또는 지인 등과 함께 승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공항 콜택시 비용은 공항에서부터 샌톤 지역까지 대략 R500 내외



**** 교통편 관련 TIP ****

남아공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기가 상당히 불편함. 공항에서 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택시강도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했다가 강도를 당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호텔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항셔틀버스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남아공 내 거래선에 픽업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이 외에 공항 셔틀버스 전문 업체도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음. 공항에서 직접 차량을 렌트할 수도 있으나,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복잡하여 잘못하면 범죄 우발지역인 다운타운 및 흑인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음.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텔에 신청하여 콜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람. 야간에 도착하는 항공일정은 위험함. OR tambo 국제공항에는 여행객들을 노리는 범죄조직이 많으므로 특히 동양인의 경우 야간에 도착하는 것을 가급적 삼가야 함.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경우 대부분 오전 7시에 도착하지만 다른 아프리카 국가를 거쳐서 요하네스버그에 올 경우 가급적 오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것.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상황이 좋지 않아 외국인이 거리를 걸어다닐 경우 주야를 불문하고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유의하여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음.

○ 공항 셔틀버스 전문 업체 (AIRPORT LINK)

연락처 : +27-11-792-2017

이메일 : booking@aipportlink.co.za 웹사이트 : www.airport.co.za

○ 주요 렌트카 회사 홈페이지

(AVIS) www.avis.co.za (BUDGET) www.budget.co.za

(IMPERIAL)www.imperialcarrental.co.za (HERTZ) www.hertz.co.za

○ 고속철 (Gautrain) 이용방법 [공항~Sandton 지역]

-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터미널 (Terminal A1) 도착 출구로 나와 안내 정보 표지판 옆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윗층으로 이동
-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20m~30m를 가면 됨. 공항 하우트레인 스테이션 (OR Tambo International Station) 은 공항 내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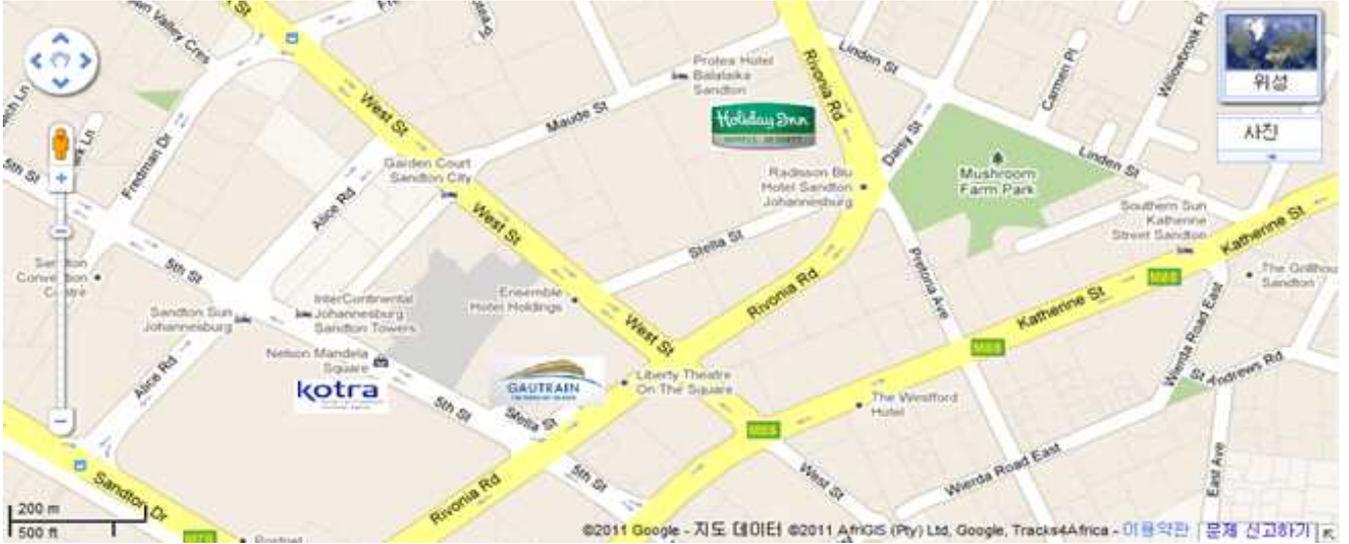


[자동 카드 / 티켓 충전]

- Gautrain Card : R15
- 공항에서 Sandton 까지 : R151



Sandton 지역 지도, 전시장, 코트라무역관, 호텔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주소: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orner. Rivonia & 5th Street, Sandton, South Africa

유용한 현지 표현

Korean	English	Zulu (줄루어)
안녕하세요	Hello	Sawubona 사보나
어떻게 지내세요?	How are you?	Unjani? 운자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ngiyabonga 기야봉가
예	Yes	Yebo 예보
아니오	No	Cha 차
실례합니다	Excuse me	Uxolo 콜로

- 줄루족 바이어와의 첫 만남에서는 영어보다는 간단한 줄루어로 인사를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줄루어 인사말을 기억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함
- 중국인들의 대량 유입으로 남아공 사람들은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기 보다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여 한국인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연락처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7-11-784-2940
이승희 본부장	+27-82-494-2058
임재걸 차장	+27-82-494-2075
임수주 차장	+27-71-642-9798
정동하 과장	+27-82-493-5820



www.kotra.or.kr